



MP3 플레이어 위협하는 MP3폰

MP3폰이 카메라폰에 이어 휴대폰 시장의 차세대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SK텔레텍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첨단기능을 갖춘 MP3폰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사들도 가세해 MP3폰 이용자들을 위한 음악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런 추세라면 기존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글 | 신경희 기자

지난해 3월 처음 등장한 MP3폰은 지금까지 약 40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약 12~13%에 해당하는 것으로 히트상품인 카메라폰의 성장률을 뛰어 넘을 수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MP3폰은 올 연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1,6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국내 휴대폰 시장만 따로 놓고 보면 이같은 트렌드는 더욱 분명해진다. 올해 국내 휴대폰 시장은 약 1,500만대로 MP3폰은 전체 시장의 73%인 1,100만대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히 MP3 플레이어를 밀어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만하다.

이처럼 MP3폰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MP3폰은 MP3 플레이어 기능 이외에도 카메라나 게임 등 다양한 기능으로 무장한 '컨버전스형 단말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P3폰은 휴대폰의 카메라를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MP3폰의 구매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란 조사결과는 MP3폰이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통신사들이 MP3폰으로 다양한 음악을 다운로드받아 즐길 수 있는 음악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GB급 하드디스크와 고음질 스피커를 내장한 음악 전용 '뮤직폰'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MP3폰의 급속한 대중화의



삼성전자 '리얼 MP3폰' (왼쪽)과 LG전자 '리얼 MP3 뮤직폰'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MP3폰

지난해 1월 MP3폰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LG전자는 현재까지 200만대 이상의 MP3폰을 판매했다. LG전자가 최근 개발한 '리얼 MP3 뮤직폰'은 MP3 전용칩을 장착해 저음과 고음을 강화하고 깨끗한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퀄라이저 효과와 음악을 들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갖추고 있다. LG전자는 앞으로 고급 기능을 갖춘 MP3폰을 계속 출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세대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제품을 집중 홍보하고, 무료 어학강좌와 같은 MP3폰에 맞는 킬러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20여종이 넘는 MP3폰을 출시했다. 최근에 내놓은 '리얼 MP3폰'은 음악을 검색할 수 있는 '조그 디스크(Jog Disk)', 70여곡을 저장할 수 있는 대용량 메모리, 128화음 멜로디를 지원하는 MP3 전용폰이다. 삼성전자는 카메라폰에 이어 MP3폰을 차세대 주력 아이템으로 정하고 인기 탤런트와 가수를 모델로 내세우며 젊은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수천곡의 음악 저장이 가능한 MP3폰도 출시할 계획이다.

팬택엔큐리텔 역시 MP3폰 개발에 적극적이다. 세계적으로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목걸이형 MP3폰 'PH-S4000'과 T슬라이드폰 'PT-S110' 등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MP3폰을 출시해 여성과 젊은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MP3폰 대중화 일등공신, 이동 3사 음악 서비스

MP3폰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이동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지원 역할이 있었다. 이동 3사는 모두 음악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월 정액요금제로 MP3를 MP3폰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음악 포털 사이트 '멜론'을 개설했다. 멜론에 안정적으로 음원을 공급하기 위해 음반업체인 YBM 서울음반을 인수하기도 했다.

KTF는 휴대폰으로 MP3를 들을 수 있는 음악 포털 사이트인 '도시락'을 오픈했다. '도시락'은 정액요금제로 운영하는 음악 포털로 MP3폰과 MP3플레이어를 이용해 음악을 이

용할 수 있다. KTF는 도시락 서비스를 위해 90만곡의 음원 데이터베이스와 약 48만곡의 음원 이용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LG텔레콤 역시 지난해 12월 음악 포털 사이트 '뮤직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포털 사이트들은 휴대폰으로 MP3를 싼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MP3폰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MP3폰의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 MP3폰이 MP3플레이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MP3플레이어가 MP3 파일 재생에 특화된 전문기기이고 음질 면에서 여전히 MP3폰보다 경쟁우위에 있어 대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MP3폰이 등장한 이후 MP3플레이어 시장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MP3폰은 휴대폰 시장에서만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MP3폰의 음질이 MP3플레이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휴대폰과 MP3플레이어 기능을 모두 갖춘 장점이 있고, 스피커와 기능 면에서도 MP3 플레이어와 간격을 좁혀나가고 있다는 것. 최근 등장하고 있는 MP3폰의 고기능 고 사양 추세와 보급 속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CeBIT) 2005'에서 공개한 '수퍼 뮤직폰'은 3GB의 하드디스크를 내장해 휴대폰이 되는 MP3 플레이어라는 찬사를 받았다. MP3 1,000곡을 저장할 수 있고, 고음질을 재생하는 디지털 파워 앰프 기능과 3차원 입체 음향효과도 갖추고 있다. 이는 MP3 플레이어에 버금가는 성능과 기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MP3 플레이어는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로 진화하고, 기존 MP3 플레이어 시장은 휴대폰으로 흡수될 것이라는 양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MP3폰과 MP3플레이어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MP3폰에는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들어간다. 하지만 낸드 플래시의 개발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조만간 저가의 대용량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한 MP3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쯤 되면 MP3플레이어와의 정면 승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K**